

## 노벨라 네그라의 최근 경향과 불법이민자\*

임 주 인

단독 / 부산외국어대학교

**Lim, Ju-In(2009), La tendencia contemporánea de la novela negra y los inmigrantes ilegales.**

---

Este estudio intenta investigar la novela negra en la que se describe la vida de inmigrantes llegados desde África y su influencia sobre la actual literatura mediterránea. La novela negra trata del entorno delictivo alrededor de la inmigración que ha sido algunos de los aspectos analizados por los escritores tales como Xavier Moret, Lorenzo Silva, Antonio Lozano y Jakob Arjouni en el Primer Encuentro Europeo de Novela Negra homenaje a Vázquez Montalbán en Getafe. Esto entrelaza con la tendencia humanista de reintegrar al otro evitando la xenofobia originada de la dicotomía entre el mundo cristiano y el musulmán. Además el hecho de que el inmigrante africano en la novela negra es conectado con el grupo criminal le presenta al lector la confusión de su identidad derivada de la derrotada integración social. Harraga es una palabra marroquí que designa a las personas que queman sus papeles antes de emigrar negando su repatriación. Y 'Tánger' es el puerto donde estos ilegales inmigrantes africanos suben a bordo hacia España cruzando El Estrecho de Gibraltar para que vivan como los europeos. A través de la novela negra, los autores señalan que es importante analizar el problema inmigrante desde el punto de vista transigente y abierto para complementar la versión oficial de los medios, que distorsiona la realidad. La novela negra critica la humanidad distorsionada por la tendencia materialista con el fin de constituir el telón de fondo de la sociedad multicultural, es decir, la actual identidad de Europa.

[inmigrante / xenofobia / novela negra / harraga / identidad;  
이민자 / 외국인 혐오주의 / 노벨라 네그라 / 아라가 / 정체성]

---

\* 위 논문은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2-A00021.

## I. 서 론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다문화 가정의 정착이다. 상당수의 결혼이주 여성들이 가난과 불화, 제도와 관습의 차이, 사회의 차별적 시각 등으로 쉽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뒤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결혼이주 여성과 자녀들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연합의 최근 이슈 중 하나도 남미나 동부 유럽, 북아프리카로부터 이주해오는 노동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 문제다. 유럽 공동체, 나아가서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의 연합을 추구하는 지중해 공동체를 지향하는 오늘날에도 자국민의 보호를 앞세운 이민 규제와 유럽연합과 비유럽 연합국 사이의 이분법적 규정은 여전하다. 특히, 오늘날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에서 실업과 환율의 급등 등으로 경제사정이 열악해지면서 이들 외국인 불법 이민자에 대한 규제정책은 날로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스페인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들에 대한 스페인 이민국의 시각은 어떠한가를 고찰함으로써 이들 불법 노동 이민자들의 정체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페인 소설 장르 중에서 이들 불법 이민자들과 관련된 범죄를 다루고 있는 소설 분석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스페인인들의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이 어떻게 이들의 정체성을 왜곡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해보려고 한다.

## II. 본 론

### 1. 노벨라 네그라와 다문화주의 정체성

존 델리(John Deli)를 시작으로 하는 미국 탐정소설의 영향을 농후하게 받은 노벨라 네그라는 시기적으로 마약이나 반달리즘 등 자본주의의 발달

에 따른 도시 범죄와 깊이 관련되어 있지만 탐정을 통한 범죄의 실마리를 찾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기 보다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스페인의 노벨라 네그라는 프랑코 독재체제의 종말인 1975년 이후 민주주의 체제로의 변화와 함께 봄을 맞이하게 된다. 알브레히트 부쉬만(Albrecht Buschmann)은 노벨라 네그라가 극우익의 보수적인 프랑코 독재체제가 붕괴되면서 찾아온 이데올로기의 혼란과 당시 스페인인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sup>1)</sup>

노벨라 네그라가 성행하게 된 시기가 프랑코 독재가 끝난 1970년 중반 이후였던 점을 감안해볼 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의 변화로 인한 혼란과 독재 체제로 인한 정치적 환멸은 사회에 대한 자아비판으로 이어졌다. 또, 이는 스페인 뿐 아니라, 70년대 사회주의 노선의 붕괴로 인해 유럽 전역에 찾아온 냉전체제의 붕괴와 그로 인한 혼란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데올로기의 붕괴와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로 인한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고발하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집단 이기주의와 인간성 파괴의 면면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폭로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 인종으로 구성된 불법 이민자로 인한 혼란은 모로코를 포함한 북아프리카나 중남미와의 역사, 종교적 제반 문제들과 얽히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Craig-Odders, 1999: 63). 이들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밀물처럼 쇄도해 오는 이민자들을 안고 나가야 하는 스페인으로서 불법 이민자들과 그들 이민자 2세대의 정체성 문제는 사회학적인 통계자료나 매스컴에만 의존할 수 없는 문제다. 이들에 대한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문학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노벨라 네그라는 그러한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20세기 스페인의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노벨라 네그라는 ETA의 테러리즘까지 포함하는 광대한 소재를 다루지만 주된 소재는 스페인의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범죄 사건이다.

불법 이민자를 이용해서 마약 거래 등 범죄 행위를 벌이고 있는 마피

1) Albrecht Buschmann "Primer Encuentro Europeo de Novela Negra Homenaje a Manuel Vázquez Montalbán 5 apuntes." [www.anyllibre2005.bcn.es](http://www.anyllibre2005.bcn.es)

아 조직망과 연계된 범죄가 등장함에 따라서 범 유럽적 연계망을 형성한다. 따라서 노벨라 네그라는 스페인 뿐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이 쇄도하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물질주의의 폐해, 도덕적 부패와 타락의 문제를 다루는 글로벌화된 소설 장르라 볼 수 있다. 특히 이민자들과 관련된 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복잡한 사회 현실 속에 내재하고 있는 유럽/비유럽의 편견에 따른 본질적인 모순을 파헤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볼만 하다.

이탈리아 출신 실비오 베르루스코니(Silvio Berlusconi)는 “외국인 혐오주의를 고집하는 북부 연맹(La Liga Norte)과 의기투합하여 국가 경제의 위기와 사회악의 원인제공자로 이민자들을 몰아세우는 것은 유대인 추방과 박해 사건 이전,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기위해 이들에 대한 자국민들의 반감을 조장했던 당시 유럽 사회의 분위기와 흡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2)</sup> 이처럼 노벨라 네그라는 과거 유럽의 전통적인 문화와 종교, 그리고 정치권력의 본질을 그대로 고집하는 민족주의적 특성을 띠는 현대 유럽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노벨라 네그라가 유럽에 처음 소개된 것은 유럽인들의 정체성이나 그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로서의 장르와 관련해서였다. 만약 유럽의 건설과 관련된 계획이 정치적 권력이나 과거 유럽의 문화와 종교적 전통에 집중되어 있다면 노벨라 네그라의 장르적 성격과는 상반된 것이라 하겠다. 노벨라 네그라는 장르의 성격상 현실과 문학 사이의 경계선상에서 그 민족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며 끊임없이 갱신하는 살아있는 장르라고 해야 할 것이다.<sup>3)</sup>

노벨라 네그라가 유럽의 정체성을 일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헤따페 네그로’ 모임을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로렌소 실바(Lorenzo Silva)는 헤따페 네그로 모임과 관련해서 엘 문도(*El mundo*, 14/10/2008)와의

2) Silvio Berlusconi. “Una prueba de acceso para los estudiantes inmigrantes.” 16 de octubre de 2008. 2008년 12월 28일. 검색 <http://www.hoy.com.ec/noticias-ecuador/pruebas-de-ingreso-para-estudiantes-inmigrantes-312077.html>

3) Rosa Mora. “Europa reinventa la novela negra.” *El País*, 17 de enero de 2005.

인터뷰에서 스페인에서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벨라 네그라가 스페인의 현실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가, 노벨라 네그라가 얼마나 스페인 독자에게 가깝게 접근해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스페인인은 글로벌화되기를 원하고 있고 노벨라 네그라라는 장르를 통해 현실에 접근하고자 한다. ‘고독’이 노벨라 네그라의 주제로 등장하면서 아프리카 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민자들이 모여살고 있는 헤따페(Getafe)는 노벨라 네그라 작가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띤다. 여기서 필자는 ‘헤따페 네그로(Getafe Negro),’ ‘아프리카 네그라(África Negra)’를 마드리드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sup>4)</sup>

헤따페에서는 2008년 10월 로렌소 실바를 주축으로 유럽 전역에서 노벨라 네그라 작가들이 모여 작품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이 모임을 헤따페 네그로(Getafe Negro)<sup>5)</sup>라 불렀다. 이를 통해서 소설이 현실과 허구의 벽을 넘어 얼마나 현실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지, 대중들에 대한 노벨라 네그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동시에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들이 이민자들로 인해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복수화 되어버린 사회 속에서 문화적 충돌을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문학이나 예술의 일부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날 바르셀로나가 노벨라 네그라의 중심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이유는 프랑스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관계로 유럽의 노벨라 네그라의 영향을 쉽게 받아들이고,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다인종적인 도시이기 때문이다. 프란시스코 곤살레스

4) Lorenzo Silva. “El lado más oscuro de la literatura coge asiento en Getafe.” *El Mundo*, 14 de octubre de 2008.

5) 헤따페 네그로는 책이나 잡담, 논쟁, 세미나, 코메디 그 밖에 음악이나 연극, 영화나 대중을 위한 활동과 관련된 장르를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둔 모임이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진 탐정소설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소개하고 탐정소설의 일반적인 유형에 대한 분석을 한다. 그리고 문학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서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일환으로 노벨라 네그라의 작가인 후안 마드리드(Juan Madrid), 호세 마리아 겔벤수(José María Guelbenzu) 혹은 라파엘 레이그(Rafael Reig)가 주축이 되어 국내외 주요 작가들과 함께 노벨라 네그라 외에도 미스터리 관련 소설, 환상소설, 과학 공상소설 등 다양한 분야의 문학 장르를 선보이는 문학 페스티벌을 펼쳤다. (idem.)

레데스마(Francisco Gonzáles Ledesma)는 바르셀로나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서로 같은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을 뿐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고 그들의 비애를 폭로하고 있다.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대도시에서의 이민자들의 방황은 다인종, 다민족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스페인의 현실을 반영하기에 이르렀다.

스페인에서는 혼종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마드리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이러한 현상이 더 뚜렷하다. 이곳은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고 본래부터 여러 지역의 문화가 한 데 어우러지는 집결지이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에서는 프랑스의 영향과 아프리카나 중남미로부터 이주해온 이민자들의 영향으로 노벨라 네그라가 새로운 형태를 띠고 있다. 노벨라 네그라는 도시의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어서 틀에 박힌 소설에 비해 자유롭다. 최근에 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바르셀로나는 이미 다민족화된 사회를 그려내고 있다 (López,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 간에는 스페인의 글로벌화의 한계를 지적하는 자들이 있다. 까를로스 토레스 레돈도(Carlos Torres Retondo)는 스페인 사회가 이민자들로 인해 다문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동화되지 못하고 현실을 외면한 채, 집시나, 유대인, 무슬림들을 소외시켰던 과거의 전통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의 커다란 흐름을 거스르려는 이같은 현상을 두고 ‘돈키호테의 시대착오적 광기’, ‘부뉴엘의 괴기스러움’, ‘피카레스크의 유물’이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Retondo, 2007). 그렇다면 노벨라 네그라를 통해 오늘날 다문화적 흐름을 거스르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외국인 혐오주의의 원인과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한다.

## 2. 노벨라 네그라에 나타난 타자성

대니얼 기어(Daniel Gier)는 유럽인들이 갖고 있는 외국인 혐오주의를 ‘타자(el otro)에 대한 불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바스크 민족주의 운동이

연금수급자들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불신과 증오에서 비롯되었던 점을 들어 이민국인 스페인인과 이민자들 사이에서의 혐오감이 오늘날 신 민족주의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sup>6)</sup> 대니얼은 오늘날 노벨라 네그라에 등장하는 도시 범죄와 테러리즘, 그리고 이민자와 관련된 마약 밀수 등의 주제가 스페인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이들 이민자들에 대한 불신과 위협에서 기인했다고 본 것이다.

1990년대 중반이후로 이민은 실업과 테러의 위협을 동반하면서 국가적인 사안으로 등장하게 된다. 많은 스페인인들에게 있어서 이민과 실업, 그리고 테러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사실상, 선진국으로의 이민은 그 국가의 경제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그 국가의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선진국 자국민들이 꺼리는 분야, 예를 들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이나, 건설, 그리고 가사도우미 등의 직종에 이들 불법 이민자들이 종사하게 되기 때문이다. 후안 고이띠솔로는 “알메리의 기적”이라는 기사에서 1980년대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알메리아에 농업 자본을 투자한 이후, 외국노동자의 노동력이 필요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스페인 자국민들이 농업이나 건설업 부문에 종사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북부 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종사하고 있고 이들의 등장 없이 스페인에서의 농업 분야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기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sup>7)</sup> 호세 하비에르 아바솔로(José Javier Abasolo)는 『죽은 자들의 색깔 El color de los muertos』(2005)이라는 작품에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을 갖고 있는 안토니오 히메네스(Antonio Jiménez)라는 한 경찰이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서 수사에 임하게 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그는 동료 리카르도 이아나(Ricardo Illana)로부터 아랍인 엘

6) Daniel Gier(2000), “Caras nuevas: reflexiones sobre la representación de norteafricanos y otros colectivos marginados en la novela policiaca española después de 1975.” *Alharaca* 2000-2001. 2008년 12월 20일 검색. <http://www.uam.es/departamentos/filoyletras/ carabes/alharaca/ invierno 2000/norteafricano.html>

7) Goytisolo, Juan. “España y sus Ejidos: Sin la llegada providencial de los inmigrantes el ‘milagro almeriense’ no habría sido posible.” *El País*, 9 de enero de 2008. 2008년 12월 1일 검색. <http://www.ub.es/penal/historia/ejido/ejido5/ejido3.html>.

마다르히(El Mdarhri)란 이민자가 자신을 도와서 범죄자 구속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엘 마다르히의 능력이나 인간성과 상관없이 그의 피부색 자체를 문제 삼으며 그를 살인자로 고소한다. 왜냐하면 외국인 이민자들은 스페인 자국민의 직업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범죄를 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마찬가지야. 거리에서 마약을 파는 거나 스페인 사람들의 직장을 빼앗는 게 뭐가 다르냐는 말이야. 모두가 다 쓰레기 같은 것이야”(2005: 35). 그러나 히메네스의 말에 대해 이야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히메네스의 근거 없는 편견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살해당한 한 이민자의 아내에게 히메네스는 매몰차게 수사를 거부한다.

물론, 당신네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사회적인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아무런 존재가치도 갖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몸이 아파도 의료원에 갈 수 없는 처지이고 마약과 매춘, 그리고 훔친 물건들을 몰래 파는 일 밖에 당신들이 하는 것이 뭐죠? [...] 왜 내가 당신의 남편이 살해당한 것을 수사하느라 전전공공해야하는 거예요? 당신들과 같은 범죄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니냐고요(2005: 37).

히메네스의 대화에서 스페인인들이 이들 이민자들에 대해서 편견과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사회 인류학자인 까를로스 히메네스 로메로(Carlos Giménez Romero)는 스페인의 실업문제와 이민자 노동문제를 연관지으면서 스페인인들이 꺼려하는 직종에만 이들 불법 이민자들이 종사하기 때문에 스페인 실업에 이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며, 실업과 노동 이민자와는 별 상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2003: 97). 그의 주장대로 이민자들의 도래가 스페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스페인 중세 1000년을 결정짓는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의 혼종문화를 거부하는 스페인 민족주의자들의 왜곡된 시각에서 외국인 혐오주의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스페인은 711년 북아프리카로부터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서 스페인으로 침략해온 무슬림으로 인해 8세기 간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내야만 했다. 북아프리카와의 감정적인 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랑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로부터 상당한 군사적 도움을 받았던 것 역시 40여 년간의 독재체제에 시달려야했던 스페인인들에게 북 아프리카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돈 홀리앙 신화는 바로 이같은 스페인인의 반아랍주의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후안 고이띠솔로는 스페인인들의 집단 의식에 대한 분석에서 스페인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일련의 것들을 타자로 지칭하면서 스페인인의 타자에 대한 배타적 의식 구조를 비판했다. 스페인인에게 있어서 타자는 스페인 세계와 대립되는 아랍 세계를 의미하는데 고이띠솔로의 작품에서 아랍 세계는 구체적으로 탕제르에서 스페인 침략을 꿈꾸는 홀리앙 백작으로 등장한다.

홀리앙 백작은 북부 아프리카 출신 호족으로 스페인 왕 로드리고가 자신의 딸을 강간한 것에 분노하여 스페인을 침입하기 위해서 모여든 무슬림에게 지중해로 통하는 관문인 북아프리카 관할지역을 통과하게 한다. 지중해를 건너 온 무슬림들은 무서운 기세로 쳐들어와 스페인을 점령한다. 전설에 따르면 로드리고 왕은 동굴 속에 숨어들어가서 독사에게 잡아먹혔다고 전해지는데 이러한 전설로 인해, 스페인인들은 스페인이 아랍인들에게 점령당한 이유 중의 하나로 도덕적인 타락, 성적 방탕함을 들면서 강박 관념적으로 성적인 것에 대해서 터부시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이민족의 침입으로 문화의 혼종을 경험하며 끊임없이 진정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왔던 스페인은 피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종교적 순결성, 성적 순결성에 매달리면서 기독교적 이념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한 것이다. 무슬림에 의해서 지배당했던 수치스런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스페인인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서 아랍인의 전형은 “색깔 있는 모포로 만든 옷을 입고 말의 고삐를 잡고 송진처럼 검은 얼굴을 한 채 양 무리 속에 있는 이리”(1984: 200)로 묘사된다. 후안 마드리드의 『집에서 온 선물 Regalo de casa』에서는 북아프리카에서

온 아랍인의 외양을 다음을 같이 묘사하고 있다.

난 얼굴을 돌렸다. 손을 이마에 댄 채 부엌에서 나오는 키 큰 남자. 그는 납작한 코에 마마 자국으로 얇은 피부를 하고 있었다. 아프리카인 같았다. 눈썹에 나 있는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은 납작한 박쥐를 연상시켰다(1986: 92).

후안 고이띠솔로나 후안 마드리드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아랍인은 야성만을 지닌 비이성적인 존재나 문화적으로 열등한 존재처럼 묘사된다. 『돈 홀리앙 백작의 변론』에서 주인공 알바로는 이리로 묘사되는 무자비한 아랍인에게 쫓기는 스페인 소년으로 묘사되다가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전설 속의 홀리앙 백작으로 바뀌어 “내일, 또 다시 스페인을 침략할 것”(1970: 201)이라는 다짐을 한다. 이는 후안 고이띠솔로의 작품에서 알바로는 돈 홀리앙 백작의 분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면서 자신의 일부(문화, 정체성, 혈통)를 끊임없이 부정하려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스페인인들의 자화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부학자들은 무데하르의 공존의 역사를 스페인 정통 역사로부터 배제시키고<sup>8)</sup> 기독교도와 그들의 문화만을 스페인의 정통성으로 인정하고자 하였지만 8세기에 걸친 아랍인과의 공존의 역사를 배제하고 무데하르나 모사라베의 존재를 설명한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해서 무슬림과 유대인이 스페인 정체성의 일부를 담당하게 된 것을 부정할 수 없다(Fernández, 2008: 24). 불법 이민자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농업과 건설업에 부흥을 가져왔고 경제적 발전에 힘입어 EU연합에 가입하여 국가 위상이 높아졌음

8) 무어인과 함께 지낸 중세의 시기는 스페인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랑하는 유대인 El judío errante』에 등장하는 몰레이(Muley)는 팔스(Pals)의 개인적인 조력자로 모로코 출신 이민자이다. 그는 모로코인들에 대한 스페인인들의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인물로서 성적으로 방탕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작가는 21세기 ‘몰레이’라는 모로코 이민자에게 중세 아랍인들에게 갖고 있는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그대로 적용시켜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사로잡혀있는 스페인인들의 자화상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종교가 다른 팔스와 몰레이, 그리고 헤셀의 진심어린 우의는 중세 무데하리스모 문화에 나타나 있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화해와 공존의 모형을 제시한다.

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외국인 혐오주의라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과거 집시와 유대인, 그리고 무슬림에 대해서 반목하는 것은 모순된다. 가르시아 칸글리니(García Canclini)는 스페인의 문화를 토착문화인 서고트족의 기독교문화와 무어인이나 유대인, 그리고 집시들의 문화사이의 교차점으로서의 혼혈문화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스페인 문화의 특성이 단편성과 다수성의 복합체이자 전통과 모더니티, 그리고 포스트모더니티가 서로 충돌하면서 해방, 팽창, 쇠신, 민주화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스페인 문화의 혼종성과 다문화성에 주목했다(2004: 329-30). 뿐만 아니라 우발도 마르띠네스(Ubaldo Martínez Vieja)는 글로벌화에 직면해 이민자 100만 시대, 아랍과 유럽을 아우르는 ‘지중해연합’을 꿈꾸는 스페인 사회가 아직 경직되어있다고 비판하면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다문화주의는 아직까지 스페인의 현실과 거리가 멀다. 스페인 사회에서 이민자는 그들과 다른 문화 속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져버린 확실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민자들은 다양성을 인정받을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만약 문화적으로 다른 이들 이민자 집단과의 공존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색하다면 다문화주의에 대해 언급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1999: 165-66).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벨라 네그라에서 작가들이 의도하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혼종’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한다.

### 3. 노벨라 네그라와 혼종의 정체성

#### 1) ‘아라가(harraga)’의 비극

1950년대 이후 스페인 탐정소설은 그 사회의 소외된 자들과 그들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해왔고 집시나 유대인, 그리고 무슬림 등 경제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자들을 소재로 다루었다. 후안 마드리드의 『중앙 여단 Brigada Central』(1989)은 14권의 시리즈로 된 책

으로 안달루시아에 살고 있는 집시와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스페인 사회 속에 어우러져 살아가면서도 사회의 법 체제와 전통적인 집시 사회의 코드 중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내적인 투쟁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 그리고 마누엘 킨토(Manuel Quinto)의 『방랑하는 유대인 El judío errante』(1987)에서는 종교적으로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서 방랑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정체성의 방향을 보여 준다. 이와 함께 오늘날 불법 이민자의 정체성 방향을 보여주는 앤드루 마르틴(Andreu Martín)의 『배우며 침묵한다 Aprende y calla』(1979)라는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다. 불법 이민자로 스페인에 정착하게 된 홀리오는 마약 밀매에 가담하라는 애인 까르멘 아버지의 집요한 설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를 만류하는 까르멘의 대화에서 홀리오가 자국이나 이민국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소외당한 영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집피우지 마세요, 아버지! 저는 홀리오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해하고 있어요. 그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 생활에서 막 벗어났어요. 지금 그는 사회 어느 계층에도 속해있지 않아요. 그는 혼자예요. 그는 혼자 소외되어 있다구요. 그는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했어요. 모르겠어요?  
(1979: 132-33)

유대인-무슬림-집시로 이어지는 정체성의 방향은 1990년대 이후 중남미와 동유럽, 그리고 북아프리카로부터 쇄도해오는 이민자들의 정체성 방향으로 이어지면서 ‘스페인 내에서의 제국주의 재현’으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코 독재 체제의 종말 이후, 현대 스페인 문학은 독재정치에서 민주주의 입헌 군주제로의 정치,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스페인 탐정소설은 미국 탐정소설보다 소외계층에 대해 더 많은 공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스페인의 정체성에 대해 재정립할 필요를 느끼게 되고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서 대두되고 있는 ‘스페인 국경 내에서의 식민지화에 대한 이슈’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경제, 사회, 성, 종교, 인종적인 차원에서 스페인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이들 불법 이민자들은 스페인의 노벨라 네그라에 자주 등장한

다(Fernández, 2008: 27).

카나리아 출신 안토니오 로사노(Antonio Lozano, 1956)의 『아라가 Harraga』(2002)는 이들 아프리카 태생 불법 이민자들의 실태를 잘 보여 주는 소설이다. ‘아라가’라는 용어는 모로코어로서 원래는 ‘태우는 자’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프리카에서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서 스페인 영토로 불법 체류하기 전에 본국송환을 원치 않아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들을 불태워버리는 불법이민자를 이르는 말이다.<sup>9)</sup> 이들은 마약거래나 그밖에 범죄에 이용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스페인에서 자리를 잡지 못할 경우, 본국에도 돌아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자들이다. 주인공 할리드(Jalid)는 가난을 피해서 스페인으로 오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자신이 꿈꾸었던 파라다이스는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자신의 과거를 모두 불태워버린 그는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가려다가 마약거래자들의 마수에 걸려들게 된다. 자신의 동생 아브데라만(Abderrahmán)은 형이 마약거래로 얻은 돈가방을 몰래 훔쳐도망가다가 그를 할리드로 착각한 마약 거래범에게 살해당한다. 과거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유럽인으로 거듭나고자 했던 할리드의 꿈은 동생의 죽음과 함께 이상화된 환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거부조차 할 수 없다. 나는 마약 거래를 거부하지만 그들은 마약 거래를 미끼로 나를 몰아세우고 있다. 나는 마약과 관련된 몇 건의 사건을 알고 있다. [...] 여성과 아이들, 국가 모두가 파멸의 맛이 든 빵에 영원히 젖어있다. 불법 이민자들의 고깃배를 타고 낙원을 찾아가던 내 길은 영원히 이르지 못할 길이기에, 나는 불법 이민자들을 상대로 거래를 벌이는 이들을 증오한다. 지금 난 그들을 원하고 있지 않아, 그들을 거부하지도 않아. 나 역시 지금 그들 중 하나가 되어버렸고 가장 가난한, 가장 버림받은, 가장 위험한 처지에 빠져있는 불법 이민자들 중 한 명을 선택해서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야만 하는 처지이다(2002: 90).

9) 아라가(harraga)는 ‘태우는 사람’이라는 모로코어에서 나온 말로서 유럽으로 이민 오기 전에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만한 서류들을 모두 불태우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실질적으로 스페인으로 이민 온 자들 모두가 스페인에 영원히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 중에서는 스페인에 와서 노동으로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외국 노동자들의 입국을 감시하고 규제함으로써 불법 체류를 위해 마피아 조직이나 마약 거래범들의 마수에 걸려들게 되고 이들과 함께 범법자가 됨으로써 스페인에 들어가기 전에 붙잡히거나 스페인에 건너가더라도 사회의 그늘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된다. 특히 아라가들은 자신의 과거를 모두 지워버림으로써 자기 나라에서조차 설 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신변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한 채 범죄에 노출된다. 불법 이민자들을 무조건 범죄자 취급하는 스페인 사람들은 자신의 집단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현실화시키는 악순환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탈제국주의 시각에서의 정체성 문제를 바라본 호미 바바(Homi Bhaba)는 ‘혼종(hibridity)’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혼종은 ‘거부’의 형식적인 과정을 뒤집는 것이다. 그래서 식민화에 대한 과격한 탈구현상이 식민 담화의 조건부가 된다. 식민주의의 권위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식민주의의 차별화된 정체성은 더 이상 문화의 카니발리즘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 탈구, 혹은 전치 현상은 힘의 배열로서의 문화를 정의할 수 있다. 기존 문화의 총체적인 실종이라기 보다는 계속적인 진통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열린 텍스트로서 문화를 바라보고 문화를 움직이는 것은 쪼개짐과 반복, 그리고 거부의 애매모호한 구조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문화를 갈등의 소재로가 아니라 문화의 차별적 생성과 그 효과로 바라보아야 한다. 차별적인 생성 효과는 문화를 바라보는 인식의 규범과 가치를 변화시킨다. 혼종은 단순히 고정된 정체성의 불가능성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예측불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권위의 작용에 간섭하는 것이다(1994: 67).

또한 들뢰즈는 차이를 가치화하고 중심부를 전복시켜 주변부를 미시정치화하는 잡종적이고 리즘적인 내재적 시공간을 탈영토화라는 용어로 정의하면서 주류의 흐름에 개입하고 위반하는 정치적 행동을 소수자되기로

설명한다. 그리고 소수자 문학을 통해서 주류 언어를 소수자적으로 다시 말해서, 타자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정정호, 2003: 44). 또한 허간(Huggan)의 경우는 호미 바바의 ‘탈식민지 담론’에 등장하는 혼종을 여행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여행의 글쓰기는 소원화의 도구가 되고 상대주의적인 시각을 통해서 국내 문화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도구가 된다”고 지적한다(2000: 39). 허간은 여행담론이 ‘문화 교류의 기준’인 동시에 ‘문화적 향수를 담는 그릇’으로 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비판이자 재평가로서의 상대주의적 시각을 반영하고 주류의 문화를 ‘소원화’시키는 매개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들의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노벨라 네그라가 이민국의 매스컴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이민자 자신이 바라본 국내 문화에 대한 비판과 자국 문화와의 차별성에서 오는 괴리감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류 문화를 소원화시키는 허간의 여행담론의 특성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류문화의 소원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2) 차이의 수용과 공존의 구현

존 맥클린(John Macklin)은 마르띠네스 레베르페의 노벨라 네그라가 매스미디어에서 다룰 수 없는 인간적인 면을 독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점을 인용해서 매스컴과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매스미디어는 뗏목을 타고 해협을 건너오는 이민자들과 헬리콥터를 타고 이들을 감시하고 있는 냉혹한 시선을 스페인 대중들에게 제시할 뿐이다. 그들은 스페인 해안으로 밀려드는 불법 이민자의 주점을 무감각하게 바라볼 뿐이다. 매스미디어는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국민들은 매스컴을 관리, 감독하는 이들에 의해서 선택된 부분만을 보게 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시각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마르띠네스 레베르페의 노벨라 네그라의 경우, 독자들에게 상대주의적 시각으로 스페인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데 반해, 매스미디어는 생생하게 현장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시청자들은 필요한 부분을 취사선택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매스컴이 제시

하는 부분만을 비판 없이 수용할 뿐이다. 따라서 보도의 형평성을 위해 고려되어야할 부분이 간과될 위험이 있다(1992: 51).

아나 델 사르토(Ana Del Sarto)는 노벨라 네그라가 갖고 있는 탐정소설의 형식에 대해 언급하면서 트라우마와의 관련성을 지적했다. 범죄와 관련된 진술서 형식의 소설은 역사적인 트라우마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재로 삼아 개인적인 경험과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써 나가는 서술 형식을 취하지만 결국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이 개인을 통해서 사회 일반의 경험과 시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고 지적했다.<sup>10)</sup> 기사나 대중매체를 통해 스페인의 일반 시민들이 접하는 불법 이민자의 문제는 EU 연합이나 스페인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 권력층의 프리즘을 통해 굴절된 시각을 일방적인 전달 통로를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이 직면해있는 반인도적인 이민국의 횡포나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에 대해 인간적인 연민이나 공감을 자아낼 수가 없다. 그에 반해 노벨라 네그라는 트라우마를 다루고 있는 다른 소설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트라우마 속에서 압제자들에 의해 침묵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대변하는 사회비판적인 특성을 갖는다. 노벨라 네그라 외에도 범죄 사건을 다루는 다른 장르의 소설들로 탐정 소설(*novela policiaca*)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크지는 않지만 차이가 존재한다. 이들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이들 간의 차이를 통해서 노벨라 네그라의 장르적 특성에 좀 더 접근해볼 수 있다. 탐정소설의 경우, 스페인의 프랑코 독재체제에 등장한 것으로 대표적인 작가로 프란시스코 가르시아 파본(García Pavón, 1919-1989)이 있는데 그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범죄들은 거의가 독재체제를 반대하는 소수 세력들, 예를 들면 분리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과 관련되어있다. 따라서 탐정소설은 국가체제에 반하는 세력들을 징벌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이들로 흠즈와 같이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탐정이 아닌 공권력을 대표하는 탐정이

10) Ana Del Sarto. "Testimonio's Roots." *Testimonio: A Reclamation of Historical Space*, 8 Jan. 2008.

[http://digitalunion.osu.edu/r2/summer06/herbert/testimonio\\_subaltern/testimonioroots.html](http://digitalunion.osu.edu/r2/summer06/herbert/testimonio_subaltern/testimonioroots.html).

다. 위의 소설 장르와 비교해서 노벨라 네그라는 매스컴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민자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이민자의 개인적 시각에서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이 하여금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한 국가정책의 비판을 이끌어내는 아래로부터의 비판이다.

코난 도일의 탐정 셉록 홈즈와 아가시 크리스티의 미스 마플은 범죄가 행해지는 밑바닥 사회에 속해있지 않다. 그들은 범죄 사회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범죄 사회를 외부에서 조망하는 데에 반해 스페인의 노벨라 네그라에 등장하는 탐정들은 범죄자, 내지는 범행 피해자와 같은 부류에 속해 있거나, 과거 속했었기 때문에 사회의 죄악상을 내부로부터 폭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Fernández, 2008: 182).

포우의 추리소설이나 셉록 홈즈를 탐정으로 하는 도일(Arthur Conan Doyle)의 추리소설은 미궁으로 빠져버린 혼란을 초자연적인 요소를 배제한 이성적인 추리를 통해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에 반해서 노벨라 네그라에서는 북아프리카나 중부 아프리카, 중남미 이주민들에 대한 문화적, 종교적, 민족적 편견과 이들의 정체성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다. 전자의 탐정소설에서 탐정이 일반인들보다 예리한 추리력으로 범죄의 진상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 탐정은 우수한 통찰력과 두뇌를 가진 인물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 출신으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 이민자들이 어떻게 범죄에 말려들고 희생되는지를 밝히고 범죄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노벨라 네그라에서 탐정은 사회적인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적에 의해서 위협을 느끼기도 하는 인간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안토니오 로사노의 『강물이 죽어가는 곳 Donde mueren los ríos』(2003)에서 두 명의 여성 불법 이민자의 운명은 판이한 양상을 띤다. 파티사(Fatiha)와 아이다(Aida)는 세네갈 출신 불법 이민자로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해 카나리아 섬으로 떠나오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마약 거래 범에게 매수당하게 되고 매춘부의 삶을 살게 된다.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곧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노동 허가는 받지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이 모로코 여인인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은 하나 밖에 없었다. 신이 내게 내린 이 몸뚱이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것이다(2003: 51).

아이다가 매춘부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데에 반해 파티사는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단체에 들어가 통역을 해 주면서 스페인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다가 아이다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에 뛰어들어 그녀의 살해용의자를 밝히는데 적극 가담한다. 아이다와 같은 처지의 불법 이민자의 삶을 체험했던 그녀로서는 그녀의 살해범이 매춘 알선자나 마약범일 거라는 추측 하에 사건에 접근하게 되고 오리무중에 빠져버린 살해 사건의 용의자를 잡아낸다. 경찰은 아이다가 매춘부인 점을 들어 그녀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용의자로서 모로코 출신의 불법 이민자 ‘아마두 카바(Amadú Kabbah)’를 잡아들인다. 경찰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정확한 증거도 없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지만 이미 스페인 이민을 조건으로 범죄조직에 매수당한 경험이 있었던 파티사는 불법 이민 여성을 미끼로 매춘 행위를 강요하는 마약 거래범인 스페인 출신 에르네스토(Ernesto)가 아이다의 살해범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된다. 여기서 아이다는 불법 이민자와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굴레로 인해 이민국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과 남성들의 횡포에 희생당한 것이다. 그에 반해서 파티사는 비록 처지는 아이다와 같았지만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회단체에서 통역관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공권력을 대표하는 경찰의 수사망을 무색하게 하는 수사력을 발휘한다.

파티사의 담론을 통해, 이민국(스페인) 사회의 부정과 도덕적인 타락을 비판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편만해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과 편견을 깨뜨리는 소원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노벨라 네그라는 유럽인들의 외국인 혐오주의의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이 이민자들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발하는 동시에 ‘유럽의

요새화'로 인해 불거지는 이분법적 차별화를 거부하고 있다. 타자를 배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야말로 바람직한 탈식민주의 전략임을 상기해볼 때, 노벨라 네그라는 '신나찌주의'나 '신민족주의'의 망상을 깨고 공존의 삶을 구현하는 인간성 회복의 담론임을 보여준다.

### III.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불법 이민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노벨라 네그라를 통해서 노벨라 네그라가 자본주의의 비인간성과 도덕성의 부재, 그리고 정치적인 부패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명해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프랑코 독재체제가 무너진 이후, 스페인에서는 사회적으로 자유가 주어지면서 민주주의로의 활발한 행보를 내딛게 되고 유럽 연합에의 가입 등으로 경제적으로도 진일보한 자본주의로의 진열에 들어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은 경제 발전을 위한 노동력의 확보 차원에서 북아프리카와 중남미, 그리고 동유럽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이게 되고 문화적인 충돌에서 오는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딜레마의 이면에는 이슬람 혐오주의와 같은 자민족 중심적인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스페인인들이 아랍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은 800여년간에 걸친 아랍인 지배에서 나온 이슬람혐오주의가 그것이다. 지브롤터 해협을 아랍인들에게 열어주었던 전설적인 인물 돈 홀리앙 백작의 신화와 카톨릭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내세웠던 피의 순수성의 신화가 낡은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스테레오타입을 스페인인의 집단무의식으로 간직해오고 있다. 오늘날, 유럽연합을 통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는 시점에 이르러, 글로벌화를 지향하기 보다는 새뮤얼 헌팅턴의 문화충돌론이 지적하는 바, 새로운 민족주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스페인 뿐 아니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노벨라 네그라'를 통해 제3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의 삶의 고뇌와 이들을 둘러싼 이민국의 신민족주의적 횡포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sup>11)</sup> 안토니오 로사노의

『아라가』는 북아프리카에서 이주해 온 젊은이의 꿈과 좌절을 그린 소설로 이들에 대한 스페인 자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편견 속에서 범죄 집단에 연루되어 이들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민자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악화되는 경제사정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바스케스 몬탈반을 중심으로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노벨라 네그라 국제세미나(17/01/2005)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노벨라 네그라의 대중적 인기가 더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럽의 요새화’<sup>12)</sup>로 인해서 남미와 북아프리카, 동유럽의 이민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가면서 특히 종교와 언어가 다른 북아프리카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해서 유럽의 제재는 심해지고 있다. 또한 경제 악화 등으로 이민자들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자국민들의 두려움은 외국인 혐오주의의 망상을 더욱 부추긴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페인인은 이민자들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면서 여성-집시-무슬림-유태인으로 이어지는 중세 마녀사냥의 망상에 스스로를 얹어매고 있는 것이다. 노벨라 네그라

11) 유럽 전역에서 이민은 담론과 시, 그리고 드라마의 주제가 되어버렸다. 주제가 유럽의 민족주의적인 편견에 대한 비판이 되건, 불법 체류자들의 처참한 현실이 되건 상관없이 이민을 둘러싼 담론은 더더욱 상대주의적 성향을 띤다. 프랑스에서는 알제리나 모로코에서 온 이민자들을 소재로 이들에 대한 프랑스인의 외국인 혐오주의를 다루는 소설이 많이 등장했다. 이민자들에 대한 프랑스의 경험을 스페인의 그것과 비교해볼 때, 이미 이민 2, 3세대가 정착해서 살고 있는 프랑스의 문학 작품 중에는 이들 이민자의 후손들이 자신의 선조들이 지내온 이민의 경험을 자신의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다. 이들의 문학 속에서 소수자와 이들에 대한 편견이 2005년 폭동에서 보았듯이 이민자들을 거리의 폭도로 내몰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은 마히 비네비네(Mahi Binebine)의 『카니발 Cannibales』(1999)이고 여기서는 탕제르에서 스페인 남부 해안을 작은 보트에 의지해 건너가는 불법 이민자의 삶을 보여준다. 2000년 스페인어로 번역되었고 제목은 『이민선 La patera』이었다. 또 영국에서는 파키스탄 태생인 하니프 쿠레이시(Hanif Kureishi)와 방글라데시 태생인 모니카 알리(Monica Ali) 두 작가를 포함하여 조셉 콘래드(Joseph Conrad)와 같은 대가들이 이민자 문제를 다루었다. 스페인에서는 1994년 이후, 매년 이민자를 주제로 한 작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12) 오늘날 스페인의 이민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은 스페인이 유럽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다고 혹평하고 있다. 스페인은 슈레간 조약에 동참하여 유럽 국가간 경계를 허물고 비유럽국에 대해서 국경을 봉쇄하고 이들의 유입을 철저하게 막고자 한다. 그들은 스페인이 소위 ‘유럽의 요새화’에 동참하면서 나찌의 민족주의의 허상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에 등장하는 이민자들은 마피아 집단에 연루되어 사회악의 한 축으로 위협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마티아스 네스폴로(Matias Nespolo)는 불법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북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의 문화적 차이가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 타입과 현실 왜곡을 초래했다고 비난한다(2003: 123). 노벨라 네그라의 작가들은 이들 불법 이민자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된 집단 무의식이나 신민족주의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는 사회 현실을 고발하고 이들을 개개의 인격체로 파악할 것을 역설한다. 노벨라 네그라는 냉전 이후, 인간 사이의 관계마저 금전적인 것과 맞물려 돌아가는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고발이자 불법 이민자들의 인권회복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 정정호. 2003. 『들뢰즈 철학과 영미문학 읽기』. 서울: 동인.
- Abasolo, José Javier. 2005. *El color de los muertos*. San Sebastián: Hiria.
- Berlusconi, Silvio. 2008. “Una prueba de acceso para los estudiantes inmigrantes.”  
16 de octubre. 2008년 12월 28일 검색.  
<http://www.hoy.com.ec/noticias-ecuador/pruebas-de-ingreso-para-estudiantes-inmigrantes-312077.html>.
- Bhabha, Homi.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 Buschmann, Albrecht. 2005. “Primer Encuentro Europeo de Novela Negra Homenaje a Manuel Vázquez Montalbán 5 apuntes.” 2009년 2월 1일 검색.  
[www.anyllibre2005.bcn.es](http://www.anyllibre2005.bcn.es)
- Craig-Odders, Renée W. 1999. *The Detective Novel in Post-Franco Spain: Democracy, Disillusionment, & Beyond*. New Orleans: UP of the South.
- Del Sarto, Ana. 2008. “Testimonio’s Roots.” *Testimonio: A Reclamation of Historical Space*, 8(1).  
[http://digitalunion.osu.edu/r2/summer06/herbert/testimonio\\_subaltern/testimonioroots.html](http://digitalunion.osu.edu/r2/summer06/herbert/testimonio_subaltern/testimonioroots.html).
- Fernández Lino, Shanna Catarina. 2008. “The Problem of Immigration and Contemporary Spanish Detective Fiction.”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Philosophy. University of Toronto.
- Gier, Daniel. 2000. “Caras nuevas: Relexiones sobre la representación de norteafricanos y otros colectivos marginados en la novela policíaca española después de 1975.” *Alharaca* 2000-2001. 2008년 12월 20일 검색.  
<http://www.uam.es/departamentos/filoyletras/earabes/alharaca/invierno2000/norteafricano.html>.
- Giménez Romero, Carlos. 2003. *¿Qué es la inmigración?* Barcelona: RBA Libros.
- González, Carlos. 2005. “Novela negra, una herramienta social para la construcción de la identidad europea.” in *Any del Libre i la Lectura 2005*. Barcelona: Institut de Cultura de Barcelona.

- Goytisolo, Juan. "España y sus Ejidos: Sin la llegada providencial de los inmigrantes el 'milagro almeriense' no habría sido posible." *El País*, 9 de enero de 2008. 2008년 12월 1일 검색. <http://www.ub.es/penal/historia/ejido/ejido5/ejido3.html>.
- Graham, Helen, and Jo Labanyi(eds.). 1995. *Spanish Cultural Studies*. Oxford: Oxford UP.
- Herrera, Juan José Galán. 2008. "El Canon de la novela negra y policíaca." *Tejuelo*, 1: 58-74.
- Huggan, Graham. 2000. "Counter-Travel Writing and Post-Coloniality." in Liselotte Glage(ed.). *Being/s in Transit: Travelling, Migration, Dislocation*. Amsterdam: Rodopi. 37-60.
- Jiménez Bartlett, Alicia. 1997. *Día de perros*. Barcelona: Grijalbo.
- López, Isidro. 2006. "Francisco González Ledesma: para ser novelista no te prepara nadie." 21.LDNM-MAR-ABR 2006. 2008년 11월 30일 검색. [www.ladinamo.org](http://www.ladinamo.org)
- Lozano, Antonio. 2002. *Harraga*. Granada: Editorial Zoela.
- \_\_\_\_\_. 2003. *Donde mueren los ríos*. Granada: Editorial Zoela.
- Macklin, John. 1992. "Realism Revisited: Myth Mimesis and the *Novela Negra*." in Rob Rix(ed.). *Thrillers in the Transition: Novela Negra and Political Change in Spain*. Leeds: Trinity and All Saints College. 49-73.
- Madrid, Juan. 2004. *Tánger*. Madrid: Espiral.
- \_\_\_\_\_. 1986. *Regalo de casa*. Madrid: Alfaguara.
- Martín, Andreu. 1979. *Aprende y calla*. Madrid: Sedmay.
- Martínez Veiga, Ubaldo. 1999. *Pobreza, segregación y exclusión espacial: la vivienda de los inmigrantes extranjeros en España*. Barcelona: Icaria.
- Mora, Rosa. 2005. "Europa reinventa la novela negra." *El País*, 17 de enero.
- Nespolo, Matias. 2003. "Antonio Lozano retrata el fenómeno de la inmigración ilegal." *El Mundo*, 16 de diciembre. Año XV. 5: 123.
- Quinto, Manuel. 1987. *El judío errante*. Barcelona: Laia.
- Rei, Joana. 2008. "El lado más oscuro de la literatura coge asiento en Getafe." *El*

*Mundo*, 14 de octubre.

Silva, Lorenzo. 2008. “El lado más oscuro de la literatura coge asiento en Getafe.” *El Mundo*, 14 de octubre.

Salazar, Alfonso. 2008. “Detectives en la guantería, ¿Novela negra mediterránea?” *Homenaje a la Novela Negra*. Atenas: Instituto Francés.

Rotondo, Carlos Torres. 2007. *Testimonio: Inmigración y escritura*. Madrid: La Mirada Malva A.C.

Vázquez Montalbán, Manuel. 2000. *El hombre de mi vida*. Barcelona: Planeta.

## 임 주 인

주소: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E-mail: jlimoh@hotmail.com

- 
- 논문접수일: 2009년 3월 30일
  - 심사완료일: 2009년 4월 15일
  - 게재확정일: 2009년 4월 27일